

건설동향

BRIEF_{ing}

• WEF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2025년, 지정학·환경·사회·경제·기술적 영역 전반에서 분열 양상 심화
- 단기(2년) 리스크 요인 1위는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
- 장기(10년) 요인은극심한 기상이변이 1위
- 복합대응력(Comprehensive Resilience)의 유무가 기업의 경쟁력 좌우

• 건설문화 향상을 위한 호주의 노력

- 호주 건설산업의 위기 인식, 연간 80억 달러(AUD) 손실 추정
- 건설 문화표준(Culture Standard)의 3가지 핵심 영역
- 건설 문화표준 추진 동향
- 사람중심 건설산업으로 전환 기대



WEF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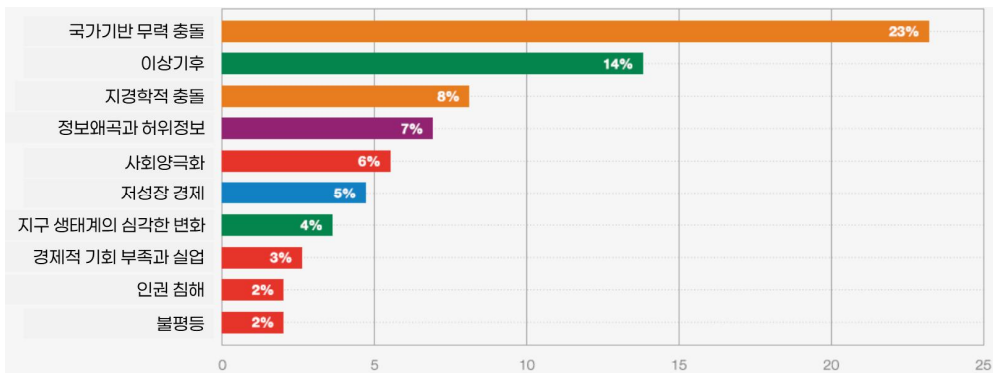
- 복합대응력(Comprehensive Resilience)의 유무가 기업의 경쟁력 좌우 -

손태홍(건설기술·관리연구실장 · thsohn@cerik.re.kr)

2025년, 지정학·환경·사회·경제·기술적 영역 전반에서 분열 양상 심화

- 지난해 세계 곳곳에서 분쟁 확산과 격화, 기후변화로 인한 수많은 극단적인 기상 현상, 사회적·정치적 양극화의 확산, 그리고 허위 또는 오해를 야기하는 정보의 확산을 가속화하는 기술 발전을 목도할 수 있었음.
- 정치 및 군사 지도자들의 판단 착오나 오판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에서 낙관론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으로, 냉전 시대 이후 가장 분열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이러한 인식은 GRPS(Global Risks Perception Survey, 글로벌 리스크 인식 조사)의 결과에도 반영되며, 현재와 단기, 장기 등 모든 시간대에서 암울한 전망이 조사됨.
- 2025년 세계에 대한 조사 결과를, 2년 전에 제시된 2년간의 위험 전망과 비교해 보면, 특히 '분쟁'과 관련된 인식의 악화가 확인됨. 응답자의 23%가 '국가 기반 무력 충돌(State-based armed conflict)'을 현재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지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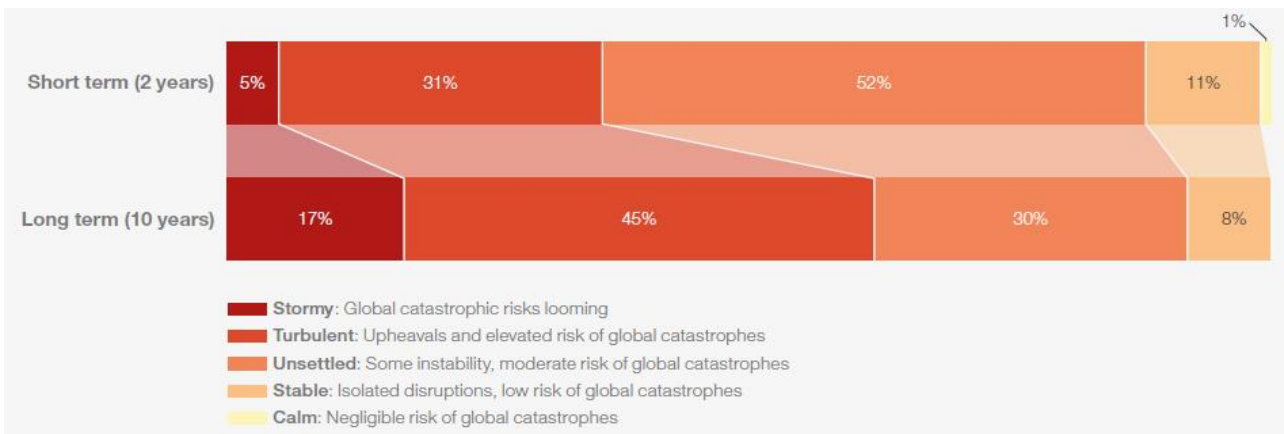
〈그림 1〉 현재 시점의 글로벌 리스크 순위(%)



1) World Economic Forum(2025) The Global Risks Report 2025의 주요 내용을 요약함.

- 응답자의 과반수(52%)는 향후 2년 동안 불안정한 글로벌 전망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작년과 유사한 수준임. 또 다른 31%는 격동기를, 5%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상황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 세 범주를 합산하면 전년 대비 총 4%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2027년까지 세계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의미함.
- 2년간의 단기 전망과 비교해 보면, 향후 10년의 장기적 전망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조사됨. 응답자의 62%가 ‘폭풍우’ 또는 ‘격동기’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현재 직면한 리스크가 야기하는 취약성을 기존의 사회적 메커니즘이나 통치 기관들이 효과적으로 해결하거나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낮다는 점을 시사함.

〈그림 2〉 단기(2년) 및 장기(10년) 글로벌 전망



단기(2년) 리스크 요인 1위는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 장기(10년) 요인은 극심한 기상이변이 1위

- 지난해 조사 이래 처음으로 단기 리스크 요인 중 1위를 차지했던 잘못된 정보와 허위정보 (Misinformation and disinformation) 요인은 금번 조사에서도 1위를 기록함.
 - 잘못된 정보의 확산은 여러 방식을 통해 지정학적 환경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음. 예를 들어, 외부 세력이 유권자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분쟁 지역에서 실제 상황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음.
 - 단기 리스크 요인 중 2위를 극단적인 기상 현상에 이어 3위를 차지한 국가 기반 무력 충돌은 지난해 5위에서 순위가 상승함.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촉발된 불안정성뿐 아니라, 중동 지역과 수단에서의 지속적인 갈등도 2025년 이후의 불확실성과 우려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 사회적 양극화(Societal polarization)와 사이버 첩보 및 전쟁(Cyber espionage and warfare)이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함. 특히, 사이버 첩보 및 전쟁은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기술의 역할이 응답자들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됐음을 의미함.

- 지정학적 경제 충돌(Geoeconomic confrontation)은 작년 14위에서 올해 9위로 상승하며, 향후 세계 경제 질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줌.

● 장기(10년) 전망에서는 극단적인 기상 현상 외에 다양성 감소와 생태계 붕괴(Biodiversity loss and ecosystem collapse), 지구 생태계 시스템의 결정적 변화(Critical change to Earth ecosystems), 천연자원 부족(Natural resources shortages)이 같은 환경요인이 높은 순위를 기록함.

- 장기 리스크 요인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의 부정적 결과(Adverse outcomes of AI technologies)가 작년과 동일한 6위를 차지했으며,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 7위와 8위를 나타냄.
- 지난해 단기 및 장기 리스크 요인 중 10위 안에 포함되었던 경제적 기회 부족(Lack of economic opportunity, 단기 6위)과 비자발적 이주(Involuntary migration, 장기 7위) 요인은 순위가 하락하거나 10위권 밖으로 밀려남.

〈그림 3〉 단기(2년) 및 장기(10년)별 글로벌 10대 리스크 요인

순위	단기(2년)	장기(10년)	순위	단기(2년)	장기(10년)
1	Misinformation and disinformation	Extreme weather events	6	Pollution	Adverse outcomes of AI technologies
2	Extreme weather events	Biodiversity loss and ecosystem collapse	7	Inequality	Inequality
3	State-based armed conflict	Critical change to Earth systems	8	Involuntary migration or displacement	Societal Polarization
4	Societal polarization	Natural resources shortages	9	Geoeconomic confrontation	Cyber espionage and warfare
5	Cyber espionage and warfare	Misinformation and disinformation	10	Erosion of human rights and/or civil freedoms	Pollution

경제

환경

지정학

사회

기술

복합대응력(Comprehensive Resilience)의 유무가 기업의 경쟁력 좌우

- 건설기업은 단순한 시공 능력뿐 아니라 위기 대응력과 지속가능성, 사회적 수용성, 기술·정보 보안 역량을 전략적으로 내재화할 필요가 있음.
 - 복합적인 리스크 요인 발현 속에서 미래의 건설산업은 기존의 생산 중심 구조를 넘어 ‘위기 적응형 혁신 산업’으로 진화해야 하며,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 대응이 아닌 중장기 전략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
 - 건설기업은 시공 기반의 단순한 인프라 공급자가 아닌, 지정학적·환경적 리스크에 대응 가능한 회복력과 기술기반 혁신력을 갖춘 국가 및 지역 사회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임.



건설문화 향상을 위한 호주의 노력

- 호주 건설산업의 문화표준 도입 동향, 사람 중심 건설문화의 긍정적 영향 확인 -

성유경(연구위원 · sungyk@cerik.re.kr)

호주 건설산업의 위기 인식, 연간 80억 달러(AUD) 손실 추정

- 호주에서 건설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자살률, 스트레스, 번아웃 지수가 높고, 높은 이직률과 낮은 여성 참여율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조사됨. 컨설팅사 BIS Oxford Economics는 이를 방치하면 연간 약 80억 호주달러(한화 약 7조 4,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함.²⁾
 - 2018년 조사에서 호주 건설업 근로자 중 64%가 주 50시간 초과근무를 하고 있으며, 59%는 일과 생활의 균형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건설업 근로자의 정신건강 악화 지표는 타 산업보다 두 배 이상 높으며, 2일에 한 명꼴로 건설노동자가 목숨을 끊을 정도로 정신건강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었음.
 - 또한, 건설산업은 호주에서 가장 남성적인 산업으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건설산업 인력의 12%에 불과하고 현장직 여성은 2% 미만으로 나타남.
- 이에, 호주에서는 건설산업 전반의 근무 문화를 바꾸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변화하고자 2018년 건설문화TF(Construction Industry Culture Taskforce, 이하 CICT)를 구성함.
 - CICT에는 호주건설협회, 주정부(뉴사우스웨일스 및 빅토리아), 산업 및 학계의 연구진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건설산업 관계자들의 폭 넓은 협업을 통해 건설 문화표준 작성, 시범사업 수행, 사업의 성과 평가 등 건설 문화 변화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
- CICT의 목적은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성과를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산업을 더 많은 사람이 일하고 싶어 하는 산업으로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건설 문화표준(Culture Standard)’을 개발함.

2) 사망, 부상, 질병으로 인해 연간 61억 달러(AUD)의 직접 비용이 소요되며, 간접적으로는 장시간 노동에 따른 생산성 손실(7.1억 달러), 정신질환에 따른 손실(6.4억 달러), 자살률 증가에 따른 손실(5.3억 달러) 비용이 발생하여, 총 79.8억 달러(AUD)의 손실이 발생함. 해당 보고서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사람들과 프로젝트가 위험에 처할 것”으로 언급하며, 건설산업 전반의 신속한 협력을 강조함. BIS OXFORD ECONOMICS(2021.5), THE COST OF DOING NOTHING REPORT.

- CICT는 건설산업의 핵심 문제로 과도한 장시간 노동과 만성적 피로, 열악한 정신건강, 그리고 다양한 인재를 끌어들이지 못하는 업계 구조를 지목했으며, 이 때문에 건설산업 종사자의 이직률이 높고, 산업 전반에서 생산성 정체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함.

❖ 건설 문화표준(Culture Standard)의 3가지 핵심 영역

- 건설 문화표준은 건설산업 전반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한 핵심 영역으로 △시간(Time for Life), △웰빙(Wellbeing), △다양성 및 포용성(Diversity & Inclusion)을 제시함(그림 1) 참고).

〈그림 1〉 호주 건설산업의 문화표준 핵심 영역



Time for life

삶을 위한 시간보장

업무 외의 삶을 영위하고
실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보장

- 업무의 유연성 제공
- 주 5일 및 주 50시간 제한 근무



Wellbeing

웰빙

정신적·신체적 건강 우선시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구축

- 정신건강 관리 및 교육
- 정신건강 응급요원 도입
- 웰빙을 고려한 사업일정 수립



Diversity &
Inclusion

다양성과 포용성

건설산업의 다양한 인력 확보
및 포용적 환경 조성

- 차별 없는 업무 환경 조성
- 다양한 인력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
및 임금 격차 해소

자료 : CICT(2025.1)의 주요내용 정리.

- 삶을 위한 시간 보장(Time for Life) : 충분한 휴식과 업무 외의 활동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종사자의 건강을 지키고, 이것이 업무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함.
 - 피로와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과도한 근무시간은 생산성 저하와 직원 이직으로 연결됨.
 - 주 5일 근무제(주말 근무는 예외적 상황에서 허용), 주 50시간 이하 근무 제한,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 등 건설산업의 과도한 근무시간을 해결하고,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정책 도입이 필요함.
- 정신적·신체적 건강의 우선 보장(Wellbeing) : 신체적 안전·건강과 함께 근로자의 정신건강과 웰빙을 보장해야 함.
 - 건설산업은 안전사고 방지에는 열심이였으나, 직업병 예방과 정신건강 관리에는 소홀한 경향이 있었음.
 - 근무시간과 압박감 등 위험 요인에 대한 사전 조치, 정신건강 관련 교육, 정신건강 응급요원 도입 등 종사자의 안전, 직업병, 정신건강 위험 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제안됨.

- 다양성과 포용성(Diversity & Inclusion) : 다양한 인력이 환영받는 건설 문화를 조성하고, 이들을 위한 적절한 편의시설을 갖추며, 임금 격차를 해소해야 함.
 - 인력 부족에 처한 건설산업이 여성, 청년, 다문화 인력 등 새로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인재풀은 좁아지고 산업 성장도 한계에 직면할 수 있음.
 - 불쾌한 언어나 성차별을 방지하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 및 소수자 비중 확대를 위한 목표 수립과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종사자 특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포용적 건설 문화를 구축해야 함.

📦 건설 문화표준 추진 동향

- CICIT의 문화표준은 2021년 초안이 공개되었고, 이후로 공개의견 수렴(1차), 설문조사, 후속 연구, 시범 사례 분석이 진행되었음. 최근에는 보완된 문화표준 2.0(Culture Standard)과 실행지침이 발표되었고, 이에 대한 2차 공개협의를 진행됨(그림 2) 참고.
 - 1차 공개의견 수렴 과정에서 시행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대부분은 문화표준 도입이 건설산업 문화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평가했으며, 특히, 주 5일 근무제와 정신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음.³⁾

〈그림 2〉 호주 건설산업의 문화표준 추진 단계



자료 : CICT(2025.1), Culture in Construction_Consultation Guide.

- 한편, 문화표준에 대한 실증을 위해 5개의 시범사업이 운영되었으며, 5개 시범사업에 대한 연구결과⁴⁾, 사업 기간과 비용, 안전성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고, 인력 유지율은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도출됨.

3) 총 1,256명이 설문문에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95%가 주 5일 근무제, 91%가 정신건강 프로그램에 찬성함.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정신건강 응급요원 도입(61%), 직업건강 위험 관리(66%)의 선호도는 낮았음. CICT(2025.1), Culture in Construction_Consultation Guide: updated draft Culture Standard and draft Implementation Resources.

4) RMIT 대학, 멜버른대학, 시드니대학, 호주국립대학(ANU)의 건설 및 경제분야 전문가들이 수행한 연구로, 관련 보고서는 CICT 웹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음.

- 해당 연구⁵⁾는 시범사업에서 직원 유지율이 향상되었으며, 문화표준을 호주 전반에 도입하여 시범사업과 유사한 성과를 얻는다면, 연간 약 3억 8,600만 ~ 7억 7,100만 호주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얻을 것으로 예상함.
- 시범사업의 종사자 대상 인터뷰에서는 월급 근로자의 93%가 주 5일 근무를 선호했으며, 유연근무를 통해 개인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해진 점을 긍정적으로 보았음. 또한, 충분한 휴식이 좋은 성과로 이어졌으며, 근무시간 상한이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응답함.
- 시급 근로자의 71%는 주 5일 근무를 선호했으며, 수입 감소는 크지 않았고 가족 및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평가했음. 다만, 월급 근로자보다는 주 5일 근무의 선호도가 낮았는데, 이는 소득 극대화를 위해 6~7일 근무를 선호하는 인력도 있었기 때문임.

사람 중심 건설산업으로 전환 기대

- 호주의 건설 문화표준 추진 사례는 종사자의 웰빙과 다양성 확보가 단순히 복지 차원을 넘어,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직결되는 과제임을 보여줌.
 - 무엇보다 주 5일 근무제 혹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시범사업에서 사업 일정, 비용, 품질, 안전성 측면의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적정 근로시간과 충분한 휴식이 오히려 직원 유지율 향상을 통해 생산성 증가로 이어진다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남.
 - CICT는 건설 문화표준을 제안함에 있어 단순히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왜 필요한가'에 대한 경제적 근거를 함께 제시함.
- 우리나라 건설산업에서도 근로환경 개선은 중요한 현안으로, 제도개선과 정책적 지원, 민관 협력 등을 통해 다각적인 대응이 진행되고 있음.
 - 지난해 말 건설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출범한 산학연관 협의체 '건설동행위원회'에서도 사회공헌, 기술혁신과 더불어 근로환경 개선을 핵심과제로 다루고 있음.
- 종사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존중받고,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릴 수 있는 건설문화가 조성된다면, 건설산업은 유능한 인재가 찾아오는 매력적인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이끄는 기반이 될 것임.
 - 우수 인력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산업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산업으로 인식 전환되어야만 비로소 인재 유입과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질 것임.

5) CICT(2025.1), Culture in Construction_Consultation Guide.